



성결대학보

CONTENTS

교육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교육목표 기독교적 지도자 / 창의적 전문인 / 자율적 봉사자

NO.368 2019. 02. 15 Fri

발행인 윤동철 주간 이시윤 간사 김찬규 편집장 김수연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351, 8276 http://www.sungkyul.edu



2 보도
본교 국내 대학
최초 XR센터 개관



4 대학
어서와~
성결은 처음이지?



6 부처기관
전자적 학보사 시점



7 새내기
대학에서 친구
사귀는 방법

환영사

신입생 환영사



총장 윤동철 박사

신입생 여러분, 성결대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자율적 삶의 주체로서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모님과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환경의 지배아래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환경과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배웠다면 이제는 한편으로 그 세계 내에서 삶의 영역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방된 미래사회를 수용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결대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교육은 인성, 즉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인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양육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다른 한편 삶의 현장에서 생존이 아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신입생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는 과거와는 달리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찾아온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아닌 일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 폰의 주기가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는 새로운 문화와 시대를 매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여러분의 형상으로서 근원적인 존재의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철학적 성찰과 반성을 주제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였던 근대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문명이 만들어 놓은 현실세계는 근원적인 가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기계문명에 재빠르게 적응해야만 한다는 실존적 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노력하고 달려도 따라잡기 힘든 문명의 속도에 지쳐 포기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존경받고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며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이제 여가적 또는 낭만적 질문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할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격변의 시기에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줄 대학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새로운 시대의 교육이 여기 성결대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대학교는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교육방식이 아닌 개개인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이론과 실기와 현장이 요구하는 기술이 융합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1학년 말에 전공을 옮길 수 있습니다. 2학년 말에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전통적인 전공 외에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체세대미디어, 블록체인 핀테크 등과 같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입학할 때는 없는 전공이지만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갈 때에 주전공으로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XR센터는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최초로 개소하여 모든 전공자들이 부전공으로, 비교과 과정으로 더 나아가 체세대미디어 주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센터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취업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대학으로서는 가장 활발하게 해외취업의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성결대학교는 UniverCity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미래사회를 캠퍼스에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도시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의 장은 여러분을 새로운 경험과 세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결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결대학교 총장 윤동철

지면 미리보기

3면 OT 일정

한눈에 보는 학사 및 OT 일정

4면 본격 성결대 캠퍼스 소개

어서와~ 성결은 처음이지?

7면 레포트가 걱정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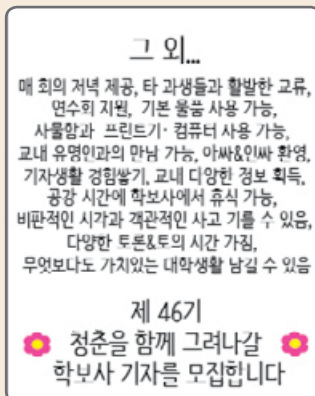
새내기를 위한 과제 사이트 추천

7면 초면인 동기들과 쉽게 친해지는 방법!

호감을 얻는 대화 스킬 대공개

성 결 만 평

그림 - 문태경 기자 xmun97@daum.net



본교, 국내 대학 최초 XR 센터 개관



지난 11월 23일(금) 오후 5시 학술정보관 1층에서 XR센터 개소식이 진행됐다. XR은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MR(복합현실) 등을 총망라한 혼합현실을 한 단어로 부르는 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XR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조성됐다. 수년 내 상용화될 IT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시연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며, 국내 대학 최초로 XR 센터를 개관해 국내 대학의 발전 도모 및 지식 산업캠퍼스에 한 발짝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본교 대학일자리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VR/AR 기술을 통한 스포츠, 교육,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각 업계 인재상을 파악하여 청년들이 진로를 찾고, 취업역량을 강화

하겠다고 전하며 VR/AR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VR EXPO에 참여했다.

한편, 본교는 지난 12월 18일(화) 서울 코엑스 VR EXPO 전시회에서 가천대학교, 건국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우송대학교와 대학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 간 XR 센터 연합체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과 혁신적인 교육을 실현하고자 체결했다. 5개교는 △대학 인력양성 협력 △학생 공동 개발 협력 △해외 진출 협력 △대학 프로그램 교류 등 그 밖에 상호협력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할 예정이다.

글 - 김수연 편집장 yoonney123@naver.com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본교 체육교육과 운동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입상

지난 10월 12일(금)부터 18일(목)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정동원(체교 13) 학우가 배영 5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신동휘(체교 16) 학우, 김영현(체교 18) 학우가 테니스 단체전에서 동메달 획득의 쾌거를 거뒀다. 정동원(체교 13) 학우는 개인 신기록을 갱신함과 동시에 국내 50m 배영 선수로는 최고의 선수임을 입증한 결과이며, 테니스부 동메달은 지난 15년간 테니스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전국체육대회 노메달이라는 불명예를 말끔히 씻은 최초의 전국체육대회 메달이다.

본교 운동부의 성과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경기도 체육회는 2년 연속으로 1,5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고, 이는 운동부 학생들의 전지훈련, 훈련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 - 김수연 편집장 yoonney123@naver.com
사진 - 뉴시스 뉴스



본교 산학협력단, 50억 상당의 정부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본교 산학협력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공동 사업인 '2019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경기 7개 분야 운영단체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산학협력단은 2017년부터 본 사업을 진행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선정 및 강사 선발을 통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

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전국 17개 시·도지역의 지정 및 공모로 선정된 운영기관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예술 강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사업 등을 통해 학교 및 학생에게 폭넓은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9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준비기간을 통해 운영학교 모집 및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술 강사의 심사와 선발을 통해 경기도 각 운영학교에 예술 강사 배치가 이뤄지게 되고, 2019년 12월까지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총 7개 분야를 운영할 예정이다.

글 - 김수연 편집장 yoonney123@naver.com
사진 - 본교 홈페이지



김예지(영문) 학우 안양시장상 수상

지난 12월 3일(월) 김예지(영문) 학우가 통역 봉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안양시청에서 시장상을 표창받았다. 김예지(영문) 학우는 지난 3년간 성실히 통역 봉사를 수행했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통역 봉사팀 팀장으로 한·미 우호증진과 학·관 협력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 본교 영어영문학과는 안양시와 통역 봉사에 대한 협약을 맺어 매년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 안양시 자치행정과와 안양 동안 청소년수련관에서 매년 미국 가든 그로브(Garden Grove) 시 고교생을 초청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위해 영어영문학과 학우들이 매년 동행 통역 봉사를 하고 있으며, 미국 학



생들이 본교를 방문하는 행사가 진행될 때면 학교 행사 및 친교 행사도 담당하고 있다.

글 - 김수연 편집장 yoonney123@naver.com
사진 - 본교 홈페이지



편집장 노트

끈대의 조언

대학교에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다. 타 대학 학생들과 공모전에 나가고, 시험 기간엔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를 하며, 여느 노래 가사처럼 이쁜 연애도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의미 없는 술자리만 반복되고, 전혀 없는 끈대들의 히스테리에 점점 지쳐갔다. 대여섯 명의 동기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방학엔 다 같이 여행도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아직 대학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은 새내기들한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고? 필자가 했던 실수를 당신들이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끈대가 되긴 싫지만, 당신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딱 두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첫째, 개인의 삶의 영역을 넓혀갈 것. 이 말인즉슨, 나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관계를 배우란 말이다. 학년을 거듭할수록 대학만큼 작은 사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흔치 않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둘째, 배움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 것. 여기서 말하는 배움이 비단 전공 지식이나 자격증 등의 학문적인 배움을 뜻하는 건 아니다. 언어, 교양 등 평생에 걸친 학습도 중요하지만, 때론 작고 사소한 배움

의 중요성에 무게를 뒀으면 한다. 이를테면 드립 커피 맛있게 내리는 방법, 플레이팅 이쁘게 하는 법 등등.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건 의외로 작고 사소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위의 두 가지를 어떻게 충족했을까. 각자 다른 전공자들이 모여 개인의 일정도 뒤로한 채 머리를 맞대는, 알아주는 이 없어도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학보사에서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가치를 배웠다. 매월 반복되는 회의에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교정보다 응원의 말이 가득한 원고를 볼 때면 지독

하고 간간하기로 소문난 필자도 무장해제 되곤 한다.

그렇다. 이 글은 대놓고 학보사와 함께할 수습 기사를 모집하는 글이다. 어울릴 친구가 없어 학교생활이 걱정인 새내기들도, 글재주는 없지만 그저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한 이들도, 관심은 없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학보사에 지원할 자격은 충분하다. 이전 편집장들처럼 개인의 편의를 봐줄 만큼 넓은 아량도, 뛰어난 글재주도 없다. 다만 특유의 재치와 애정으로 열댓 명의 기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개개인의 가치가 덧없지 않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자부한다.

2019학년도 학사일정

2019학년도 학사일정

구분	일자	학사내용
3월	03. 04 ~ 03. 04	▶ 입학식, 개강(정상수업)
	03. 04 ~ 03. 06	▶ 신입생 수강신청기간
	03. 04 ~ 03. 08	▶ 1학기 장학금 2차 신청 이수구분 변경 및 4학년 학점이수 확인기간
	03. 05 ~ 03. 08	▶ 수강신청 변경기간
4월	03. 12 ~ 03. 14	▶ 개강 채플(일반대학)
	03. 14 ~ 03. 14	▶ 개강 채플(신학대학)
	03. 25 ~ 03. 29	▶ 수강과목 철회 신청기간
	03. 29 ~ 03. 29	▶ 졸업논문(시험·작품·연주·실기)제출 제출마감
5월	04. 01 ~ 04. 12	▶ 중간 강의평가 기간
	05. 02 ~ 05. 08	▶ 조기졸업 신청기간
	05. 07 ~ 05. 13	▶ 전부(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신청기간
	05. 13 ~ 05. 15	▶ 하계계절학기 예비수강 신청기간
6월	05. 24 ~ 05. 24	▶ 1학기 수업일수 12/15선
	05. 27 ~ 05. 31	▶ 2학기 장학금 1차 신청
	05. 31 ~ 05. 31	▶ 후기졸업자 논문(시험·작품·연주·실기)제출 마감
	06. 10 ~ 06. 21	▶ 강의평가기간
7월	06. 11 ~ 06. 11	▶ 기말고사
	06. 11 ~ 06. 13	▶ 1학기 종강 채플
	06. 14 ~ 06. 20	▶ 기말고사
	06. 21 ~ 06. 21	▶ 하계방학
8월	06. 24 ~ 07. 12	▶ 하계 계절학기 기간(15일)
	06. 28 ~ 06. 28	▶ 성적 및 출석부 제출마감
	07. 03 ~ 07. 03	▶ 재학생 성적열람
	07. 03 ~ 07. 05	▶ 재학생 성적장정 신청기간 학점포기 신청기간
9월	07. 15 ~ 07. 17	▶ 계절학기 성적 및 출석부 제출
	07. 29 ~ 08. 02	▶ 휴학·복학 신청기간
	07. 31 ~ 07. 31	▶ 2018학년도 후기 졸업사정회
	08. 05 ~ 08. 07	▶ 예비수강신청기간(장바구니)
10월	08. 09 ~ 08. 09	▶ 후기 학기수여(학위수여식 없음)
	08. 19 ~ 08. 21	▶ 수강신청기간
	08. 19 ~ 08. 28	▶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08. 29 ~ 08. 29	▶ 개강(정상수업)
11월	08. 29 ~ 09. 04	▶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수구분변경 및 4학년 학점이수 확인기간 2학기 장학금 2차 신청
	09. 05 ~ 09. 05	▶ 개강 채플(신학대학)
	09. 05 ~ 09. 11	▶ 개강 채플(일반대학)
	09. 16 ~ 09. 19	▶ 수강과목 철회 신청기간
12월	09. 20 ~ 09. 20	▶ 개교기념일
	09. 23 ~ 10. 04	▶ 중간 강의평가 기간
	10. 23 ~ 10. 25	▶ 조기졸업 신청기간
	10. 28 ~ 11. 01	▶ 전부(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신청기간
1월	11. 04 ~ 11. 06	▶ 동계계절학기 예비수강 신청기간
	11. 20 ~ 11. 20	▶ 2학기 수업일수 12/15선
	11. 25 ~ 11. 29	▶ 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 1차 신청
	11. 25 ~ 12. 06	▶ 강의평가기간
2월	11. 29 ~ 11. 29	▶ 졸업논문(시험·작품·연주·실기)제출마감
	12. 05 ~ 12. 11	▶ 종강 채플
	12. 09 ~ 12. 10	▶ 기말고사
	12. 18 ~ 12. 20	▶ 기말고사
3월	12. 23 ~ 12. 23	▶ 동계방학 시작
	12. 23 ~ 01. 14	▶ 동계계절학기 기간(15일)
	12. 30 ~ 12. 30	▶ 성적제출·출석부 제출마감 재학생 성적열람
	01. 02 ~ 01. 06	▶ 학점포기 신청기간
4월	01. 06 ~ 01. 08	▶ 재학생 성적장정 신청기간
	01. 15 ~ 01. 17	▶ 계절학기 성적 및 출석부 제출
	01. 27 ~ 01. 31	▶ 휴학·복학 신청기간
	01. 31 ~ 01. 31	▶ 2019학년도 전기 졸업사정회
5월	02. 10 ~ 02. 14	▶ 예비 수강신청 기간(장바구니)
	02. 13 ~ 02. 14	▶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02. 17 ~ 02. 19	▶ 수강신청기간
	02. 21 ~ 02. 28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개강일 및 종강일

구분	개강일	종강일	방학일	비 고
1학기	2019. 03.04(월)	2019. 06.20(목)	06.21 (금)	공휴일 : 05.06(월) 대체 공휴일 06.06(목) 현충일
2학기	2019. 08.29(목)	2019. 12.20(금)	12.23 (월)	공휴일 : 09.12(목)~14(토) 추석연휴 09.20(금) 개교기념일 10.03(목) 개천절 10.09(수) 한글날

※ 15주 운영(경배와 찬양, 영성훈련, 영암체전, 축제 등의 수업 결손이 없어야 함

2019학년도 성결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과 함께

시 간	2월 18일(월)	시 간	2월 19일(화)	2월 20일(수)	
6:00 ~ 9:00	학교집합 (~09:00) [19학번]	6:00 ~ 7:00	새벽 예배 (06:00~07:00)	새벽 예배 (06:00~07:00)	
		7:00 ~ 8:00	기상 및 세면 (07:00~08:00)	기상 및 세면 (07:00~08:00)	
		8:00 ~ 9:30	아침식사 (08:00~09:30)	아침식사 (08:00~09:30)	
9:00 ~ 11:00	입학식 (9:30~11:00)			짐 정리 (09:00~9:30)	
		9:30 ~ 10:00	단과대학 및 학부별 행사1 (09:30~11:30)	손망실 확인 (9:30~10:00)	
		10:00 ~ 10:30		인원점검 및 차량 탑승	
		10:30 ~ 11:00			
		11:00 ~ 11:30			
11:00 ~ 11:30	안전교육(11:00~11:30)	11:30 ~ 12:00	점심식사 (11:30~12:30)	학교에서 만나요~♥ (10:30~14:00)	
11:30 ~ 12:00	이동시간(11:30~12:00)	12:00 ~ 12:30			
12:00 ~ 12:40	점심식사(12:00~12:40)	12:30 ~ 13:00	단과대학 및 학부별 행사2 (12:30~14:30)		
12:40 ~ 13:20	출발 준비(14:40~13:20)	13:00 ~ 13:30			
13:20 ~ 14:00	출발 [학교→여주 휴게소or문막 휴게소 → 단양대명리조트] (13:20~16:30)	13:30 ~ 14:00			
14:00 ~ 14:30		14:00 ~ 14:30			
14:30 ~ 15:00		14:30 ~ 15:00	이동 및 준비시간		
15:00 ~ 15:30		15:00 ~ 15:30	단과대학 및 학부별 행사3 (15:00~17:00)		
15:30 ~ 16:00	15:30 ~ 16:00				
16:00 ~ 16:30	16:00 ~ 16:30				
16:30 ~ 17:00	인원점검 및 방 배정 (16:30~18:00) 준비	16:30 ~ 17:00	저녁 식사 (17:00~18:30)	총학생회 비대위 메인행사: 신(입생)과 함께	
17:00 ~ 17:30		17:00 ~ 17:30			
17:30 ~ 18:00		17:30 ~ 18:00			
18:00 ~ 18:30	저녁 식사 및 리허설 (18:00~19:00)	18:00 ~ 18:30	비대위 및 중운위 소개		
18:30 ~ 19:00		18:30 ~ 19:00			
19:00 ~ 19:30	여는 예배(19:00~19:30)	19:00 ~ 22:30	총학생회 비대위 메인행사: 신(입생)과 함께		
19:30 ~ 22:30	기관행사 (19:30~22:30)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22:30 ~	객실 복귀 및 취침 시간	22:30 ~	취침 시간		
~ 3:00	학부 장기자랑 연습(비공식)				

Welcome to Sungkyul world

어서와~ 성결은 처음이지?

통학버스
승강장

아름다운 청춘의 20대를 성결대학교에서 함께 보내게 될 19학번 새내기 학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본교 캠퍼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캠퍼스 이곳저곳을 미리 알아둬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어 19학번 학우들의 대학 생활이 보다 꽃 피는 청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함께 생활하게 될 본교 캠퍼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중생관
(사회과학대학)

- 지하 학생식당 및 매점, 문구점, 휴게실, 동아리실
- 1층 외래교수실, 컴퓨터실
- 2,3층 강의실
- 4층 어학실습실, 언어교육원 사무실
- 5층 사회과학대학 교수연구실

중생관은 사회과학대학의 학우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그 외에도 타 대학 학우들의 교양 강의를 위한 건물로 자주 이용된다. 지하에는 학생식당 및 매장과 문구점이 위치하고 있고, 그 옆에는 휴게실과 동아리실이 자리한다. 1층에는 외래교수실과 컴퓨터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컴퓨터실에는 학우들이 사용할 가능한 복사기 등이 위치하고 있다.



영암관
(인문·사범대학)

- 지하 피아노 연습실
- 1층 어학실습실
- 3층 디지털피아노실, 세미나실
- 4층 임용고시반, 사범대학 교수연구실
- 5층 교구제작실, 인문대학 교수연구실

영암관은 인문대와 사범대 학우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이다. 지하에는 피아노 연습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일반 강의실 외에도 계단식 강의실이 위치하고 있다. 본 건물에 관련해 새내기 학우들이 알아두면 이동에 편리할 정보 하나, 영암관 3층과 중생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생회관
·
체육관

- 1층 학보사, 영자신문사, JOB카페, 글로벌라운지, 종합인력개발센터, 학생지원과
- 2층 총학생회실, 대의원회실, 학회실, 보건진료소, 학생생활상담소
- 3층 동아리실, 방송국, 헬스장
- 4층 체육관

학생회관은 복지와 쉼터를 위한 공간이 많아 소속 대학과 관련 없이 많은 학우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이다. 1층에는 과제, 정보 검색, 프린트 사용이 가능한 JOB 카페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같은 층에는 무료 외국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외국어 학습 시설의 글로벌 라운지가, 2층에는 총 학생회실과 대의원회실 및 학우들을 위한 시설이 위치해 있다.



성결관
(공과대학)

- 지하 정보통신공학부 실습실, 실내외 쉼터
- 1층 교양실습실
- 2층 정보통신공학부 실습실, 물리실습실, 실험준비실
- 3층 멀티미디어학부 실습실, 멀티미디어학부 세미나실, 교양실습실
- 4층 컴퓨터공학부 실습실, 컴퓨터공학부 세미나실, 교양실습실
- 5층 공과대학 교수연구실

성결관은 공과대 학우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이다. 건립 당시에 세워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물이기도 하며, 컴퓨터 관련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우들도 이용하곤 한다. 지하 1층에는 실내외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학우들의 쉼터로 이용된다.



명학역에서 본교 정문까지 운행되는 통학버스의 승강장이다.

명학역 ⇄ 성결대학교(10분 간격)
오전: 8:00 ~ 10:50
오후: 12:30 ~ 13:30, 16:10 ~ 18:00

성결대학교 ⇄ 명학역(10분 간격)
오후: 12:20 ~ 13:20, 16:00 ~ 17:50
21:20, 21:40(2회 운행, 성결관 앞 출발)



기념관
(신학·예술대학)

- 1층 카페, 오딧세이21홀
- 2층 홍대실홀, 신학대학·예술대학 교수연구실
- 3층 극장, 평생교육원 사무실
- 4층 대회의실, 영암기념실, 연기실습실
- 5층 대강당, 교목실

기념관은 주로 신학대와 예술대 학생들이 전공수업을 듣기 위해 이용하는 건물이다. 다채로운 교육과 실습을 위한 강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예대 학생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홍대실홀과 1,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위치해있다. 입학식, 해오름식 등 큰 행사가 열릴 때 대강당이 사용되며 교양 필수 과목인 대학생활과 진로, 체질을 수강하기 위해 타 대학 학생들도 기념관을 찾는다.

학술정보관



- 지하1층 주차장
- 1층 U-라운지, 자동서고시스템, 일반열람실/노트북 열람실, 이용자서비스센터, 성결연혁관
 - 2층 멀티미디어 열람실, 소극장, 그룹감상실, XR센터
 - 3,4층 스테디룸, 각종 열람실
 - 5층 신간잡지, 참고자료, 논문자료
 - 6층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하늘정원, With U

학술정보관은 국내 최초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 스마트하고 편리한 시설을 자랑한다. 1층 로비에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있고, 성결대 학우라면 누구나 사용할 가능한 컴퓨터와 인쇄기가 비치돼있다. 또한 대여한 책의 반납도 1층에 위치한 도서반납창구에서 할 수 있다. 2층~4층에는 스테디룸과 각종 열람실이 위치해있고 5층부터는 국제회의실과 하늘공원이 위치해있다.

신유관
(대학원)



기숙사와 대학교회가 함께 위치하고 있는 신유관은 대학원 건물이다. 신유관의 교직원식당은 뷔페식으로 운영 중이며 성결대 학우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학술정보관 쪽에 위치한 입구로 올라가면 빠르게 갈 수 있다.

재림관
(대학본부)



- 1층 입학관리과, 학사관리과
- 2층 정보지원과, 취업지원과, 시설관재과
- 3층 교무과, 총무과, 대외홍보과, 국제교류과
- 4층 평생교육원 교학과, 강의실, 휴게실
- 5,6,10층 교수연구실
- 7층 회의실, 강의실
- 8층 이사장실, 법인사무국, 총장실, 부총장실
- 9층 교수연구실, 교수학습지원센터, 미디어센터
- 10층 공학인증센터

재림관은 우리대학의 대학본부 건물로, 주요 행정부서가 위치해있다. 복수전공신청, 전과신청, 재학증명서발급 등 학사에 관련된 업무를 보길 원한다면 재림관을 찾으면 된다. 1층에는 ATM기기가 설치되어있고 그 옆에는 책을 반납할 수 있는 무인도서반납기가 있다. 등록금과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는 경리과는 2층에 위치해있다.

운동장

기념관 앞에 있는 운동장에는 제본, 출력이 가능한 복사실과 샤워시설이 위치해있다.

전지적 학보사 시점

“당신의 소중한 대학 생활의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자들의 거침없는 제보로 공개되는 학보사의 리얼 일상! 그리고 시작되는 학보사 기자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Q1 학보사는 어떤 기관인가요?

사전적 의미로는 주로 대학에서, 학보를 발행하는 기관이라고 정의됩니다. 저희는 학교와 외부 사이 소통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현재 저희 학보사에 정해져 있는 분야는 대학, 취업, 사회, 문화, 기획이며, 기자들이 직접 섭외부터 취재, 사진 촬영, 인터뷰를 거쳐 본교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3 학보사만의 장점이 있다면?

학보사는 필력 좋은 기자들과 함께 이전과는 다른 학보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모두가 넘치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과 사 구분이 철저하며, 함께 할 때 모두가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또 개인 사물함과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도 지급되니 이보다 안락한 보금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장점은 귀여운 기자들과 미모의 편집장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Q2 학보사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나 언론사 또는 방송 계열 취업을 꿈꾸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학보사는 값진 경험이 되는 활동입니다. 글 하나를 완성하더라도 회의의 통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함께 취재를 나가 얻게 되는 또 새로운 짜릿함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이 쉽지만은 않지만, 학보에 새겨진 제 이름을 보는 것으로도 기쁘고 학우분들이 저희가 쓴 기사를 읽어주실 때 활력을 얻어 그다음에 바라봅니다. 함께 일하다 보면 아주 가끔은 서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힘든 시기도 있지만 이처럼 저희는 배울 점도 많고 느끼는 것도 다양해서 힘든 만큼 보람을 느낍니다.

일부에서는 많은 이들이 학보를 잘 읽지 않는데 그래도 기자 생활을 지속하는 이유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성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본교 학우를 위한 학보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며 활동합니다. 한 명이라도 저희가 내는 학보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Q4 학보사를 하며 가장 행복한 순간은?

솔직히 시작부터 좌충우돌이라 진심으로 행복한 순간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힘들게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채택된 후 기사가 완성되면 그만큼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축제나 교내 행사가 있을 때는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 촬영과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가끔은 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귀가가 늦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학보사의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보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좋습니다.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은 기사를 쓰는 데 있어 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책임감과 예의 그리고 협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든 마찬가지인데 특히 여럿이 모여 하나를 만드는 학보사에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실력은 노력으로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저희 학보사와 함께,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학보와 함께 설레고 알찬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본교 학생회관 배포대

교내 학보 배포대 위치 안내

●**배포 건물** : 기념관, 신유관, 영암관, 중생관, 학생회관, 학술정보관 (재림관 제외)

1. 기념관 : (예대, 신학대) 1층에 엘리베이터 옆 2군데, 2층 엘리베이터 옆
2. 신유관 : (대학원) 입구 바로 앞 위치
3. 영암관 : (인문대) 1층 엘리베이터 옆
4. 중생관 : (사과대) 1층 엘리베이터 옆
5. 학생회관 : 건물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엘리베이터 옆
6. 학술정보관 : 5층 도서관 열람실 내부



△본교 중생관 배포대

학보사 기자의 한마디

처음 학보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작년 3월, 학과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학보사 수습기자 모집 공고였다. 사실 나는 기자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사건을 취재하고 이를 글로 남겨 학우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멋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또 학보사 활동을 하면 더 알찬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생각으로 그날 바로 편집장 선배에게 지원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수습기자에게 신문을 만든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 처음 글을 쓸 때는 내가 글을 잘 쓰고 있는지, 면의 분량을 채우는 일마저 어렵게 느껴졌다. 학보가 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음 호를 준비해야 하는 것 또한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선배들은 나에게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 덕분에 매번 기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발행된 내 이름이 실린 첫 학보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물론 학보사 일이 힘들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교생활을 병행하며 신문 한 호, 기사 한 줄을 써내려가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닥쳐오는

취재와 마감이 시험 기간과 맞물릴 때면 밤을 꼬박 새운 날도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년 동안 수습기자로써 다양한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글을 쓰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넓힐 수 있었고 학보사 선배들과 동기들 등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다. 그렇기에 학보사 기자 일은 고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새내기 여러분들 중에는 오티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학보를 펴 본 이들도 많을 것이고,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만약 이 학보를 보고 학보사에 대해 관심이나 흥미가 생겼다면, 그리고 대학 생활 중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학보사의 문을 두드리주길 바란다.

글/사진 - 윤소원 기자 ysowon1209@naver.com
김수현 기자 soohyun9973@naver.com

대학에서 친구 사귀는 방법

대학 생활을 앞두고 있는 19학번 새내기들의 기분은 설렘 반 두려움 반일 것이다. 현재 많은 학우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인간 관계가 걱정인 학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1. 호감을 얻는 대화법

인간관계는 소통에서 시작돼 소통으로 끝난다. 대화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가장 간편하고도 명확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이자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동기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123화법

123 화법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1분만 하고, 2분 동안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말에 3번 맞장구쳐주는 방법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보다 음식, 여행, 날씨, 취미, 영화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공통 관심사를 찾은 후에도 상대방의 말에 끝까지 집중하고 대답과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쿠션 화법

쿠션 화법은 부탁하거나 거절할 때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완충해주는 대화법이다. 말 앞에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실례지만”, “바쁘겠지만”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오늘 약속이 있어서 같이 못 놀아”라는 문장에 쿠션 화법을 활용하면 “미안하지만 오늘 약속이 있어서 같이 못 놀 것 같아”처럼 더 부드럽워지고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줄 수 있다.

■ 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기

비언어적 표현은 시선, 표정, 제스처, 거리 등을 의미한다. 대화할 때 말보다 비언어적인 표현이 효과적인 소통을 이끌어낸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화자에게 집중하고 제스처를 활용해보자. 말하는 사람은 청자가 자신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해준다고 느끼게 되고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비언어적 표현은 오히려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2. 동기들과 가까워지는 방법

대화법만 안다고 동기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위의 호감을 얻는 대화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학보사가 추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먼저 다가가기

우선 모든 사람들과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처음부터 모두와 친해지려 하기보다 한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자. 다가가는 것이 어렵겠지만 한번 시도해보자. 다들 겉으로 편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때 동기더라도 N수생이 있을 수 있으니 존댓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권한다.

■ 학생회나 동아리활동 참여하기

학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 같은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다. 크고 작은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고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특히 공강 시간에 시간표가 같은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점차 서로를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교양 수업을 듣거나 팀플을 하면서 친해지는 등 뜻밖의 우연으로 시작되는 인간관계도 많다.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 많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지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친해져야 한다는 압박감은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이다. 4년이라는 대학 생활은 길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많을 것이다. 설령 마음이 맞는 친구를 찾지 못해도 캠퍼스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전부는 아니니까 조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 - 서효정 기자 hj000119@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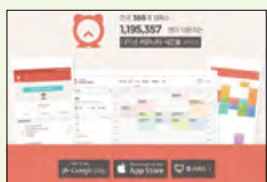
사진 - 대학내일 / [참조] 하나팩스

#신입생#이거모르면#손해#대학생활#꿀팁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대학 생활! 이것만 알아두면 대학생활은 어렵지 않다. 교내 재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앱과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앱을 소개하며, 필자가 그 동안 과제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던 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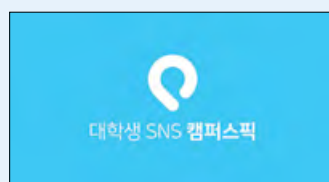
◆ 대학생 커뮤니티

1. 에브리 타임



에브리 타임은 310만 명에 달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가입한 재학생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이다. 각 캠퍼스마다 플랫폼이 있으며 학교 인증을 거친 재학생들의 익명 소통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익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재학생들이 수강했던 강의를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어서 본인과 맞는 강의를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시간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젯 기능을 제공하고 학점 계산을 비롯해 에브리 타임을 이용하는 타 대학교 친구와도 시간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대학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2. 캠퍼스픽



캠퍼스픽은 이전에 설명한 에브리 타임과 연동된 앱으로 에브리 타임이 교내 재학생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캠퍼스픽은 대외활동, 동아리, 공모전과 같은 교외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어학 시험, 공모전 팀원 모집처럼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대학내일



대학내일은 1999년 오프라인 매거진으로 시작해 온라인 매거진,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며, 대학생으로서 또는 20대로서 공감할 만한 소비 트렌드, 취업, 여행 등 다양한 주제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외에도 #이십대 인터뷰, #지옥의 알바후기, #캠퍼스 예의범절 등 다양한 시리즈와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주제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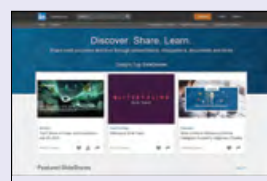
◆ 과제 사이트

1. 논문 사이트(DBpia, e-artice, KI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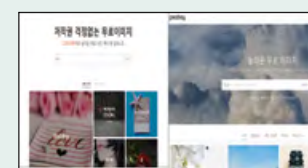
대학생활의 필수 과제인 리포트를 쓸 때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논문을 참고·인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 사이트들이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교는 학술 정보관 사이트 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외 논문 사이트 (DBpia, e-artice, KISS...)를 제공하고 있다.

2. PPT 공유 사이트 (Slide Share)



대학에 와서 PPT를 처음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표지는 무슨 색으로 하고 글자 폰트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을 새내기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바람에서 다른 이들의 PPT를 볼 수 있는 PPT 공유 사이트를 추천하고자 한다. 세계 최대의 PPT 공유 사이트인 'Slide Share'는 다른 이의 PPT를 보고 다운로드할 수도 있으며 내 PPT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해 제작하고자 하는 분야의 디자인을 보고 참고하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PPT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3. 무료 이미지 사이트/ 아이콘 사이트 (픽사베이, FreeQration.../ The noun project)



PPT는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PPT에서 이미지는 보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중요한 이미지를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를 알아두면 조별 혹은 개인과제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아이콘은 PPT에 작은 센스를 더해줌으로써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무료 아이콘 사이트 역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거침없는 청년정신



도전하는 기자정신



잘나가는 학보사

특전

- 작문 실력 향상
- 하계, 동계 연수회 지원
- 매 회의 시 저녁 식사 제공
- 정기자 진급 시 장학금 지급
- 대학생들의 소중한 추억 담당
- 타 학과 학우들과의 원활한 교류
- 교내 페스티벌 진행 시 연예인 밀착 취재 가능
- 개인 사물함 및 무한대로 사용 가능한 프린터 제공

모집 요강

모집대상 | 2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신입생 및 재학생

모집기간 | 3월 4일(월) ~ 3월 22일(금)

지원방법 | 1) 학생회관 109호에서 지원서를 수령한다
2) 정성껏 작성한다
3) 설레는 마음으로 제출한다

문 의 | 김수연 편집장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언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2019.01.29(화) 09시 ~ 03.06(수)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01.29(화) 9시 ~ 03.08(금) 18시
- 신청 대상 |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은 신청 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재학 중 1회에 한함)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신청



한국장학재단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KOSAF